



신재생에너지 시장 의욕적 창출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



**에너지수급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이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원유수입은 세계 4위)이며, 1인당 에너지소비는 세계 24위로서,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하여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원단위가 대단히 높은 나라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소비 증가세도 선진국의 경우 약 15% 내외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91~'01년간 평균 약 6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기, 가스의 소비증가율이 각각 161%, 129%로 고급에너지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 증대 및 국제투기자본의 개입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일본·미국 등 에너지 다소비국들은 정상외교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원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 환경규제 및 친환경적 에너지사용에 대한 요구가 날로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도입을 통해 국내의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북아 에너지협력 및 자원보유국과의 에너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3월 영국 런던에서 세계 주요국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 이어 5월 IEA 각료회의, 10월 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그 어느해 보

다도 에너지분야 국제협력분위기를 공고히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간 약 496억불에 이르는 에너지 도입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 환경 규제 강화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문별로 산업부문에서는 생산공정 및 기술을 에너지절약형 기술·공정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에너지사용 기기·기자재는 효율이 높은 제품은 소비를 권장하되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조기 퇴출되도록 하여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는 신·재
생에너지가 기후변화협약에 어느정도 기여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CO₂, CFC등 기후변화 영향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항구적으로 재생산 및 재활용할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또한번의 에너지혁명을 의미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미국도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Initiative'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2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국민 일반의 에너지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은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력은 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무공해 에너지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은 총 에너지 소비의 약 23% 수준으로 미약하나, 2011년까지는 약 5%까지 점유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은 100만kW급 원전 2기, 열은 석유 6천4백만배럴(우리나라 전체 1개월 소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도에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디젤 개발 및 조력발전사업의 추진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분야별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사업에 총 3259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정비, 공공기관 의무이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투자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을 의욕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계·대학·연구소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디만, 신·재생에너지야말로 향후 에너지의 역사를 바꾸게 될 주요한 국가 에너지자원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아직은 신·재생에너지가 국민 일반의 수요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여 관련 업계·학계·연구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계시기에 현재대는 물론이고 후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기대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또는 사업하시는 중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 산업자원부에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